

전문계고의 반란

도민광장



장세진

전주공고교사, 문학평론가

‘도내 서울대 117명 합격.’
2월 13일 전북도민일보 4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는 ‘도내 고교별 합격현황’을 통해 이른바 ‘SKY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학생 수를 알려 주고 있다. 소개된 49개의 고교중 순수한 전문계고는 전주공고가 유일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2명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전기컴퓨터공학부에 최종 합격했다. 1953년과 1958년 서울대학교에 각각 합격한 바 있으니 92년 역사의 우리 학교로서 50년만의 쾌거요 경사인 셈이다.
그런데 앞의 합격현황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 3시의 일반계고 중 9개 학교는 단 1명의 서울대학교 합격자도 없다. 단 1명만 합격한 학교도 14개 교나 된다. 아무리 겸손해지려 해도 그리 할 수 없는, 되지 않는 이유이다.
전주공고교생의 서울대학교 합격은, 사실 잘 짜여진 ‘작전’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2003년 시작한 ‘인재육성프로젝트’의 결실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인재육성프로젝트는 갈수록 위축되어 가는 전문계고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사회분위기가 제일 큰 이유이지만, 선배들처럼 일찍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많은 학생들이

중3 담임들의 ‘공고나 가라’는 권유로 오다보니 그리된 것이라 해도 시비할 사 람은 없을 터이다.
동문들 도움이 절대적 원천이요 힘이 었다. 처음엔 동문이 재학생과 1대 1 결 연을 맺었다. 동문이 3년 동안 공부에 필 요한 모든 경비를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식이었다. 한 사람당 대략 2천만 원이 지 원되었다.
지금은 1인 1구좌 모금운동을 통해 동문들이 학생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한 사람이 거금을 내는 1대 1 지원에서 동 문이라면 누구나 ‘가볍게’ 후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심사일반으로 다수의 동문이 뜻을 모으니 그 또한 대 단히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재정적 뒷받침만이 서울 대학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 은 아니다. 합격생중 3년 동안의 피눈물 나는 공부과정을 글로 옮겨 교육부가 주 최한 교육체험수기에 뽑힌 학생도 있듯 그들의 남과 다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할 나위 없이 많은 선생님 들의 관심과 지도 역시 기억되어야 한 다. 관악부의 전국관악합주대회 여러번 수상, 전국고교생백일장대회 다수 입상,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수상, 졸업생 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 등도 마찬 가지다. 학생들 노력은 말할 것도 없지 만, 선생님들의 열정적 지도가 없었더라 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서울대학교 합격만이 최고·최 선은 아닐 것이다. 학벌만능주의라는 사 회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의도도 없다. 그렇더라도 전문계고를 천시하는 편견 을 깨끗이 날려버렸다는 점에서 우리 모 두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 정 체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모두의 기쁨일 수밖에 없다.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 ‘전주공고에서 서울대 2명이나 들어갔다’는 찬탄의 인식이 확산되어갈 테니 그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이다.

전북도민일보 창간일: 1988년 11월 22일 등록일: 1988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전북가 00002(일간)
발행·인쇄·편집인 **林秉燦** 주필 **張龍雄** 편집국장 **林煥**
(우) 561-70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동 417-62 · 전자신문 www.domin.co.kr
대표전화 (063)251-7111 서울 본실 (02)774-8175 팔복지사 (063)255-1745
편집국 (063)251-7111 F A X (02)2234-2445 서신지사 (063)271-5430
F A X (063)251-7217 동전주지사 (063)286-2948 제보 e메일 domin2@chol.com
경영관리국 (063)251-7113 서전주지사 (063)251-3333 판매국 (063)251-7214
광고국 (063)251-7115~7 남전주지사 (063)226-1575
F A X (063)251-7218 북전주지사 (063)245-6479 구독료 1부 400원 한달 8,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시론

빈곤아동에 대한 지방정부 대책 마련되어야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 빈곤율 증가, 소득불평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체 현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가족체로 인하여 방임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시기에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규모나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다양한 이유로 공적지원에서 누락되어지는 차상의 계층과 사각지대의 아동, 이들에 부여되는 낙인 때문에 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하는 등 빈곤 및 방임상태에 놓인 아동의 수를 헤아려본다면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지원책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행정 절차상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책은 복지정책과 함께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 주체간의 업무협력 및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서비스가 분절화 되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이원화된 지원체제로 인하여 방학 중 급식이 중단된 사례가 빈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



“빈곤아동 지원정책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관련 자원들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동길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

다. 공적 체계의 다양한 기관 및 부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의 각종 아동관련 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합되지 못한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 수행은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복잡한 지원체계는 대상 아동들의 낙인감을 비롯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성의 결여가 우려되기도 한다. 과거 군산지역의 부실 도시락 문제가 그랬듯이 정책의 집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상으로 빈곤아동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업무체계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현행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빈곤아동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며, 위와 같은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사회정책들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빈곤아동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역의 빈곤아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전담부서의 마련이다.

이러한 부서의 역할은 빈곤아동과 관련된 모든 지원 서비스를 종합하고 그 실태를 확인하여 각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원 들이 상호 협력적이며,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의 사각지대 및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아동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예방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민감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아동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각종 지원의 내용은 매우 신중히 결정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화의 노력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지역에 빈곤아동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는 적절한지에 대해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빈곤아동이 건강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우리 사회가 보살펴야 할 매우 중요한 대상이자 미래의 자산이다. 특히 빈곤아동은 그 보살핌이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관련 자원들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독자의 소리

황사가 심한날엔 외출 자제해야

황사란, 중국 같은 아시아대륙 중심부에 있는 (비가 거의 내리지않는) 사막또는 황토 지대의 모래나 먼지 등이 하늘에 떠다니다가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것은 먼서풍이나 제트류등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중국에서의 황사 먼지가 2~3일 정도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멀리서 날아 오는 황사의 주성분은 무엇일까? 황사는 모래 성분인 규소, 철, 칼륨 등의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는 0.001~0.01밀리미터 정도된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 공장 등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매년 또한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날아오는 황사에도 납, 카드뮴, 알루미늄, 구리 같은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황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사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황사가 코나 입으로 흡입되는 것을 예방해야하고, 안구염, 피부 등 우리 몸이 황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보호안경)나 긴 소매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직 국내에 황사전문 마스크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로 미세먼지 차단율에 따라 마스크 성능은 다양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TV나 라디오 일기에 보를 미리 점검하여 황사가 발생하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황사철이 되면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증하는데 예부터 돼지고기의 기름기가 입과 목에 쌓인 먼지를 씻어 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돼지고기는 황사로 인한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황사 속에 섞여있는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황사 예방에 좋은 것은 ‘물’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호흡기 점막의 건조를 막아 객담배출이 용이하여 감염의 기회를 줄일 수 있으며 황사로 인한 유해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게 한다. 아울러 물로 손과 얼굴을 자주 씻어 피부에 묻어있는 미세먼지와 오염, 독성물질이 피부질환을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황사가 심한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등 먼지가 유입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김형수 / 인터넷독자

교통신호는 생명 지킴 신호

교통신호는 전방의 도로상황 및 위험성을 사전에 예고하고 효율적인 교통류를 유지하기 위한 교통통제 설비의 하나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교통의 경우 교통지체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지체를 최소화하고 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교통신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서로간의 지체를 최소화하고 소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부터 본인과 상대방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불법지각한 운전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가 하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앞차의 꼬리를 몰고 따라 가고 있다.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경찰청통계계를보면 2006년 우리나라 교통사고발생건수 21만3천745건중 신호위반사고가 2만5천167건으로 전체교통사고의 11.8%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운전 불이행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교통신호는 우리모두가 지키자고 무언의 약속을 한것과 다름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에티켓이다.

성숙한 국민은 법과 기초질서를 잘지킴때 국민다운 국민인 것이다. 우리 모두 법과 기초질서를 잘지키는 성숙한국민,국민다운 국민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였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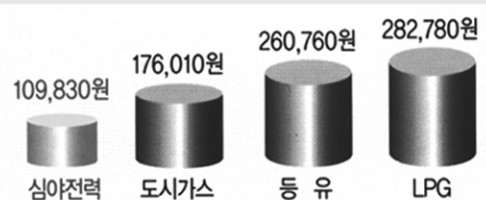
김창주 / 김제경찰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30평 기준 월 난방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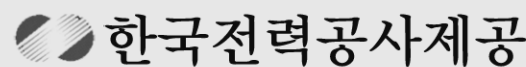


자료제공:한국전력공사 수요관리실 (2000년 7월 현재)

축열식 심야전력 호당 공급용량 제한치 변경

- 변경전 : 순수 주거용시설에 한해 호당 50kW 까지 공급
- 변경후 : 순수 주거용시설에 한해 호당 30kW 까지 공급
※ 단, 교육용 및 사회복지시설은 기존대로 공급용량 제한 용량
- 시행일 : '08.3.3(월) 접수분 부터
- 시행근거 :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 - 1279 (07.12.28) 전기공급약관 제9조

2008. 1. 17



한국전력공사제공

난방면적(평)	보일러용량(리터)	온수기(리터)	보일러온수기(kW)	한전불입금	생산공장가격	한전불입금포함 소비자결제가격
13 ~ 14	1000	200	13kW	743,600	3,256,400	4,323,600
18 ~ 21	1500	200	19kW	1,166,000	3,434,000	4,976,000
26 ~ 28	2000	200	24kW	1,518,000	3,682,000	5,478,000

경동 심야전기 보일러

심야보일러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밤11~아침9시까지)에 남아도는 값싼 전기를 난방에 필요한 온수를 90℃까지 미리 데운 대형보온용 온수저장통에 저장한 후 하루종일 내내 지속적으로 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야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및 누진세가 없습니다.

기름값 절약 만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빌려쓰는 제도

심야전기 보일러 구입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난방 평수에 따라 용량이 각각 다르며 지금 당장 계약금 및 한전 불입금(전기신청비)한푼없이도 설치 신청이 가능하며, 설치 비용은 설치 후 사용하면서 주유소 납부하시는 기름값만으로 천천히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80-005-1003

상
담
전
심
야
전
기
사
업
부

및
전
협
력
사
업
부

접
수
처
사
업
부